

코오롱, “Well-Being” 상품 집중

코오롱웰케어 설립 건강식품 · 화장품 판매 ... 고기능 섬유소재 개발

코오롱그룹이 최근 소비자들의 웰빙(Well-Being) 열풍을 겨냥해 유통 프랜차이즈 기업인 코오롱웰케어를 설립하는 등 <웰니스 플러스(Wellness Plus)>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코오롱은 2월13일 화학섬유, 화학 소재를 생활문화와 관련된 웰빙상품으로 개발하고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사업을 개시하는 등 2004년부터 <Wellness Plus>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코오롱은 관련사업의 슬로건을 “Color Your Life”로 설정하고 그룹 계열기업간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소비재 상품의 유통프랜차이즈 사업을 담당할 법인 코오롱웰케어를 설립해 건강관련 상품의 유통업을 개시한다.

이와 함께 무교동 소재 코오롱플라자 직영점을 대폭 개조해 고객들의 휴식과 건강을 강조한 개념의 매장으로 단장하고 코오롱스포렉스는 요가 프로그램이나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실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방침이다.

계열사 중 코오롱은 최근 세안용 화장용품이나 향균기능의 섬유제품 등의 부문을 강화하고, FnC코오롱은 요가 · 피트니스북 부문에 진출하는 한편 고기능 · 건강 섬유 소재를 의류에 도입할 예정이다.

코오롱유화도 해외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환경 · 인체 친화적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코오롱제약은 순환기 계통이나 노년층을 위한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타 계열사들도 건강아파트 건설이나 건강 관련 신소재 개발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밀한 그룹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hemical Journal 2004/02/16>